

4차 본교섭부터 사업장에서 진행돼

2차 본교섭, 집단교섭 요구안 설명. 차기교섭서 요구안에 대해 질의응답 진행될 것



지난 16일 상견례에 이어 2026년 집단교섭 2차 본교섭이 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은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차 본교섭에 앞서 조성민 지부장은 “현재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협의회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을 설명했다. 설명 후 지부장은 “지난해 상황도 있어 요구 수준을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성민 지부장은 “다음 교섭에서 질의 시간을 가질 것인데 혹시 사전에 질의 사항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협의회는 “논의 후 필요하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교섭을 정리하면서 회사측 간사가 신규참여 사업자인 하이록코리아 참여 시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차기

교섭부터 참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2026년 지부집단요구는 △선거관리위원과 감사위원 활동시간 확대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공동 대 지자체 요구 △임금인상(월 기본급 149,600원 정액인상) △중양교섭 참여다.

한편, 2차 본교섭 전 교섭위원 사전회의가 진행됐다. 사전회의에서는 회사측 불참 사유를 공유하고 MAN-ES 참여에 대해 의견도 나눴다. 2차 본교섭 진행 방향도 공유했다. 3차 교섭은 30일 지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창수 열사
내가 전노협이다

박창수 열사 35주기 정신계승기간 (35주기 박창수 열사 정신계승)

‘열사들의 투쟁정신을 기억하라’

■ 추모기간 : 4월 30일~5월 8일

■ 정신계승사업

- 정신계승 리본달기
- 분향소 설치 등
- 35주기 정신계승 선포식
 - 4월 30일 07시 40분 3층 생활관 휴게실
- 솔밭산 묘소참배
 - 5월 1일(금) 11시 솔밭산공원묘지

가자! 노동절, 전포대로!

2026 세계노동절 부산대회 5월 1일(금) 14시 서면 전포대로
되찾은 노동절 되찾을 노동권!

이제는 노동존중 세상으로!





▲삼성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CU규탄 긴급 기자회견’ 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김병철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노동과 세계]

교섭 7차례 요구했지만 원청,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아 사고 아닌 사회적 타살, 노동자 존엄까지 짓밟은 것 노조법과 관련 없다는 노동부, 그럴거면 왜 나섰나



[성명] 노동자 생명 앓은 CU와 정부를 규탄한다
화물연대 조합원 투쟁 중 사망, 금속노조는 연대 투쟁할 것

원청을 상대로 투쟁하던 화물연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공권력이 파업 노동자를 무리하게 진압했고, 원청이 대체인력 투입을 강행해 벌어진 일이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은 CU 원청과 정부를 금속노조는 강력히 규탄한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위해 운송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다. 심야와 새벽을 가리지 않았다. 물류센터 상차와 매장 하차 및 진열까지 수행했다. 그런데도 저임금에 시달렸다. 아르면 대체 차량 비용까지 내야 했다. 운송 노동자들이 운송사가 아닌 원청 BGF리테일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하물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법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원청 자본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섭에 응하기는커녕 탄압을 거듭했다. 또 국가의 공권력은 원청 자본이 아닌 힘 없는 노동자를 향했다.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현실은 여전히 지옥인 것이다.

화물 노동자의 투쟁은 누가 불렀는가.

사람답게 살자는 호소를 짓밟고, 생명을 빼앗은 자는 누구인가. 또 지금 투쟁은 누가 부르고 있는가. 금속노조는 연대를 멈추지 않고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20일/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활성화에 노사 공동대응 촉구

2차 중앙교섭, 올해 요구안 설명 ...
사용자협의회 “요구안이 어느해보다
무겁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는 4월 21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6년 2차 중앙교섭을 열었습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원청교섭에 불응하는 BGF자본에 저항하다 돌아가신 고 서광석 조합원의 명복을 빌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등 중앙교섭 네 가지 요구를 설명했습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요구안이 어느 해보다 무겁다며, 내부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만 위원장은 6.3 선거 전 노사가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안 발송 등을 추진해보자며 긍정적 답을 가져오길 당부했습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3차 중앙교섭을 4월 28일 노조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금속노동자]



▼ 노조 4층 회의실에서 2차 중앙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금속노조]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쟁취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